정동영 "공동 정부 구성하자"

문국현-이인제 후보에 제안
"18일까지 단일화 포기 안해"
한 "선거법 후보매수죄 해당"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2일 오전 충북 제천시 중앙시장 앞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12일 "18일까지 공동정부의 가치와 신념, 구성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며 문국현-이인제 후보에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및 창조한국당과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선거 막판까지 후보단일화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범여권 표를 결집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원주 원동성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뭉치고, 새로운 인물과 세력도 뭉치고,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정부를 만들어 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와 이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서 방향이 같은 것은 과감하게 수렴하겠다"며 문국현-이인제에게 공동정권 참여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또 "대한민국의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대의는 부패와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평화개혁세력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재천 선대위 대변인은 "좁은 의미로서 단일화"라며 "국민에게 사실상 범여권의 단일화 후보로 지지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해 정 후보의 이날 제안이 국민을 향한 것임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공동정부를 위해 이 후보와 문 후보 측과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선거일이 촉박해 별도의 기구나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역전을 향한 비상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

범여권 진영 내부가 '교통정리'되지 않은 채 현재의 흐름 대로 대선을 치를 경우 범여권 지지표가 분산돼 필패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 후보 측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일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사실상 범여권 단일후보임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이렇게 공동정부를 제안한다는 것은 본인이 당선되도록 이인제, 문국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당선되면 권력이라는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선거법 2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정부 제안을 받은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측도 "정치공학적 책략"이라고 일축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포스트 대선 발언' 함구령

정권 인수위 언급 의원에 호된 질책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2일 강원도 춘천시청 앞에서 거리 유세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2월19일 이후'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함구를 지시했다.

대선을 꼭 1주일 남겨둔 현 상황에서 40% 초중반대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오만'하게 비칠 경우 자칫 막판에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자제모드'를 강하게 주문한 것.

이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포스트 대선' 관련 발언의 자제를 주문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정권인수위 관련 언급을 한 모 의원을 불러 호되게 질책했다고 측근들이 12일 전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12·19 이후 문제는 잘못 말하면 굉장히 오만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인수위 같은 문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추측성 발언을 남발하지 말라'는 게 최대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물밑에선 당선 후 청사진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대선에 이어 곧 당선자 비서실장이 발표되고, 정권인수위의 큰 윤곽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미 분야별 밑그림 그리기 작업과 함께 세부 인선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모 핵심 측근이 50명 규모의 실무팀 책임을 맡아 분야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제 "단일화 없다 … 한표 나와도 완주"

"BBK 수사검사 탄핵 발의 정략적 발상"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12일 "낡은 진보노선으로 나라를 망가뜨린 대통합민주신당과는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단 한표가 나와도 최후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1219 선거혁명' 버스투어 출정식 및 기자간담회를 하고 신당과의 통합 및 후보단일화 협상이 무산된 것과 관련, "신당과의 이야기는 다 끝났다. 신당은 민주당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는 신당이) 언론을 통해 책략을 부린 것일 뿐"이라며 "신당이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하자 당황한 나머지 비공식적으로 민주당과 접촉해 '4자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하며 민주당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과 추종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말살위협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과 부패세력에 억눌린 의로운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과 고난에 처한 국민이 하나로 만나 선거혁명을 이뤄야 한다. 국정파탄 세력, 부패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며 "단 한표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의 혼과 정신을 안고 달려가겠다. 그 한 표에 정의가 깃들어 있고 국민의 믿음이 있다면 천만 표보다 더 무거운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정계개편 전망과 관련, 이 후보는 "국정파탄 세력은 와해하고 무너질 것이고,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야권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중도개혁정권을 세우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의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절차가 있는 것인데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만 갖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버스투어 출정식을 시작으로 16일 3차 TV토론까지 서부벨트를 중심으로 독자 대선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선 예비후보 등록 양극화
신당 7, 한 0… 李 독주 영향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일 시작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 현황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는 19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반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동영 후보의 신당에서는 무려 7명의 의원이 등록한 것.

신당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인 김한길 의원, 원내 대변인인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 최규식, 우제항, 박기춘, 김부겸, 채수찬 의원 등 모두 7명이다. 신계륜 전 의원도 등록을 마친 상태다.

/연합뉴스

호남 두자리 득표·전국 과반 넘을지 관심

■ 이명박 후보 득표율 관전 포인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독주 체제가 대선 막바지까지 이어지면서 당락 여부보다 오히려 이 후보의 득표 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반 득표 여부**=이 후보는 "지난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동서를 가로질러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압도적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50% 이상 득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 초·중반 대. 특히 투표 확실층의 지지율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 후보 측에서는 또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지지층이 갈수록 와해, 한나라당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15% 선인 부동층에서도 밴드왜건(승자편승) 효과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투표 당일까지 상승 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 두 자리 득표 여부**=호남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세우고 있는 두자릿수 득표율이 가능할지 여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호남에서 4.9%의 득표율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93.2%에 완패했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는 여전히 10% 초·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변수는 호남 유권자들의 막판 범여 후보에 대한 표 쏠림 현상. 또 막판에 범여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표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관위, '최악 투표율 될까' 초비상

범여권 지리멸렬 호남 최저 우려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찍을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사상 최악의 50%대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신임 대통령에 대한 대표성 및 정통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서 취임 초부터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 전국 성인 1천5백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67.0%로 그쳤다.

이는 1차 조사 때보다는 높아진 것이나 2002년 대선 당시의 2차 조사 때의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 80.5%보다 무려 13.5%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호남지역 적극적 투표의향층이 63.8%로 최저를 기록한 반면, 강원·제주지역이 72.7%로 가장 높았다.

역대 선거에서 최상위권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호남지역의 이번 적극적 투표의향층이 이번에 최저를 기록한 것은 범여권의 지리멸렬 상태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